

2024 년 2 월 25 일 “(아바드의 사람들 7) 마음 속에 진실을 회복하다”(시 51:5-12)

오늘은 성경에서 주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들은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

[1] 다윗의 일생

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삼상 16 장~삼무엘하, 왕상 2 장(임종)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. 또한 그가 쓴 시편들 속에서 그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.

어릴 때부터 맹수와도 싸워 이기는 무예를 익혔으며, 문필가로서 많은 시편을 썼고, 뮤지션으로서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. 또한 그는 사람들을 잘 품는 왕이었습니다.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번성한 왕국이었습니다.

반면, 그는 욕 못지 않은 처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.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높아지자, 사울의 시기와 음모로 말미암아 10 년넘게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. 그리고 아들 압살롬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.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으려 했고 그로 인해 혹독한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.

[2] 죄를 통한 회복

다윗 또한 죄인이었습니다. 밋세바를 범하고,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를 죽였습니다.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영적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.

훗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일깨워 주었을 때 그는 회개하며 시 51 편을 썼습니다.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진정으로 자기 죄에 대해 회개했는지 의아하게 만듭니다.

- i. v.1, 3 반역죄를 회개 → 성적 범죄와 살인 아닌가?
- ii. v.4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?

우리야 밋세바 부부에게 잘못했다는 통회의 소리는 직접 들리지 않습니다. 대체 다윗은 무엇에 마음이 꽂혀 있으며, 이 시는 어떻게 대표적인 성경의 회개의 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?

다윗은 자기 죄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죄로부터 참 인간됨으로의 회복이 걸모습과 말로 뉘우치는 정도로는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. 즉,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반성 정도로는 결코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도, 인간의 참된 길을 갈 수도 없음을 안 것입니다.

죄는 내 삶에서 스스로 신이 되어 제멋대로 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. 다윗은 왕위에서 편안해지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았던 겁니다. 이것은 환영이었습니다.

그리고 죄의 또 다른 특징은 은밀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. 스스로를 신이라 믿었던 환상을 잃고 싶지 않으며, 은밀하고 계획적인 가운데 죄를 직시하지 못합니다.

6 절 ‘마음 속에 진실함을 원하신다’

‘마음’ - 죄의 행동을 성사시키려고 내면에서 움직이는 은밀하고 점진적인 마음.

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뜻을 이루려는 감춘 마음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은폐된 마음 속에 진실함을 원하심을 알았습니다. 하나님이 나의 참 왕이시라는 진실한 고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.

51:17 '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(상한) 심령'이라고 합니다. '찢겨진' - 심판 받아서 산산이 부서진 상태. 스스로 신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부수진 상태! '통회하는' - 짓눌리어 뭉개져서 폭로된 마음. -> 주님은 이것을 멸시치 않고 받아 주십니다

다윗은 이 영적회복의 길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'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'라고 간구했습니다(11 절). 죄는 언제든지 다시 자신을 덮칠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.

죄를 극복할 때마다 은혜는 더욱 증만해집니다(롬 5:20 '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'). 다윗은 자기 죄를 통해 성령께서 도우시면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

<맺음>

마침내 다윗은 마음 속에 진실함을 회복했습니다. 이 회복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가꿀 수 있게 하는 참 아바드의 삶을 가능케했습니다. 오늘 죄를 통해 은혜로 역전된 다윗의 새 삶의 영적 방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

<나눔의 질문>

1. 다윗에 관해 내가 느꼈던 생각을 돌아가며 나누어 봅시다.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
2.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용서받고 삶이 회복되는 길에 대하여 말해주는 시 51 편은 내게 어떤 면에서 도전이 됩니까?